



고속도로 시대가 열린 이후 37년간, 우리 도로교통 분야의 기술력은 비약적인 발전을 ...



먼저 역사적인 “한국 길 포럼”의 발족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님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준 의원님, 추병직 전 장관님 손학래 한국도로공사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이 포럼을 출범시키기 위해 애써 주신 『한국 길 포럼』의 여러 임원님들과 지난 4월 포럼 준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오늘 발족식을 갖기까지 포럼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애써주신 준비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도로교통인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한국 길 포럼”이 오늘 드디어 발족식을 갖고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포럼의 초대 총재직을 맡아 우리나라 도로교통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 막중한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있어 40년 고속도로 역사와 10만Km에 이르는 세계적인 도로망, 그리고 1,600만대 자동차 보유국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길 포럼”의 창립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에 속하듯 지금이라도 길과 관련된 토론 모임의 중요성을 알고 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길 포럼”을 출범시킨 것은 실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 길 포럼에는 책임있는 정책 당국자와 민간분야 최고의 도로교통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만큼 앞으로의 활약상에 많은 기대가 쏠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경우 그간 도로교통분야의 커다란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급격한 자동차 증가추세는 지속적인 도로 시설 확충에도 불구하고 차량 1대당 도로 연장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해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만성적인 교통혼잡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현상은 최근들어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되면서 물류비를 증대시키는 등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대비한 북한지역 도로의 현대화와 아시안 하이웨이건설을 통한 동남아 물류의 허브 육성이라는 커다란 과제 또한 우리 도로교통인들이 해결해야 할 숙원들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갈 길은 이토록 바쁘게도 도로를 건설할 때마다 나타나는 민간단체와의 마찰, 보상비 상승에 따른 도로 건설비용 증대, 도로건설 재원 축소 추세 등은 우리나라 도로교통분야의 선진화를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진국들의 경우 갈수록 지능화된 첨단 기법을 도로 건설 및 관리에 접목하고 부단한 도로교통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종합교통체계 구축에 나서는 등 도로교통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면서 국제경쟁에서 우리를 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효율적인 주요 도로교통정책을 입안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민.관.산.학.연이 함께하는 “입체적인 공조”가 시급하며 그런 점에서 주요 도로교통정책에 대한 상호협력과 자문, 발전적인 의견개진 및 세계 흐름 파악, 국제 교류 등을 주도할 “한국 길 포럼”이 그 활동을 시작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포럼 관계자와 도로교통인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주요 도로교통정책이 난벽에 부딪칠 때는 “솔로몬의 지혜와 해법”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도로교통산업의 글로벌 경쟁 전략이 필요할 때는 과감히 앞장서 이론과 경험을 토대로 국제적인 흐름을 주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도로교통인들의 생일인 도로의 날에 “한국 길 포럼”이 탄생하고 이 포럼을 통해 더 큰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이 포럼이 이 시간 이후 우리의 길 산업과 도로교통인들의 앞날을 환하게 열어주는 행운의 길잡이가 되어 줄 수 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7. 6.

한국 길 포럼 총재 오 명